

〈유화기연〉을 통해 본 군자(君子)의 조건과 그 이면*

구선정**

— <차 례> —

1. 조선 시대 교양인, 군자(君子)
2. 유춘의 신체적 결핍(缺乏)으로 인한 외상(外傷)
3. 유춘의 발전 과정에서 드러나는 군자(君子)의 조건
4. <유화기연〉을 통해 본 ‘군자’의 이면 - 결론을 대신하여

〈국문초록〉

교양은 서구적 의미에서 인간의 문화적 됴됨이를 만드는 교육의 내용과 그 절차를 뜻한다. 조선 시대 훌륭한 자질을 갖춘 이상적인 인간상을 ‘군자’라 칭한 만큼, 본고에서는 조선 시대 교양인을 ‘군자’로 설정하고, ‘군자’되기의 과정을 통해 조선 시대 교양이라 할 수 있는 조건들과 그 의미를 살펴보았다.

고소설 속 남성 주인공들의 이상향은 중국적으로 군자가 되는 것이다. <유화기연〉의 유춘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여타 고소설의 주인공들과 다른 점은 주인공 유춘이 ‘성불구’라는 장애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성기가 없다는 점에서 남성성을 상실한 인물이다. 자신의 결함을 숨기고 결혼했다가 부인과 장인에게 탄로나 쫓겨나기까지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춘은 군자가 되기 위해 수기치인(修己治人)의 길을 걷는다.

유춘은 대자연 속에서의 심성 수양과 도학 수련을 통해 수기(修己)를 마친 다음, 치인(治人)의 길을 걷는다. 과거 급제를 하여 높은 관직에 올라 밖으로 서용과 도적 일당, 간신의 무리들을 진압하여 나라와 국민의 안정과 평화를 도모한다. 뿐만 아니라 흠여졌던 가족들도 봉합하여 가문을 재건하고 변역시킨다. 이렇게 하여

* 이 논문은 한국고전연구학회 2015년 하계 학술대회에서 ‘고전문학과 교양’이라는 기획 주제로 발표한 것을 수정한 것임.

** 한신대학교 교양대학 강사.

유춘은 군자의 경지에 오른다. 그러나 유춘이 치인(治人)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옥낭이라는 기생에 의해 잃어버렸던 성기를 되찾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이렇게 유춘이 군자의 경지에 오르게 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조선시대 특히 조선 후기의 군자의 조건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첫째, 남성성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군자란 덕이 있는 사람을 지칭한다. 여기에는 출신배경이나 신분도 상관이 없다. 그러나 유춘은 도덕적인 수양을 갖춰음에도 불구하고 성적 회복이 이루어진 다음에야 치인(治人)의 길을 걸을 수 있었다. 한편 성기를 되찾게 되면서 가족과의 관계에서 우위를 선점한다. 남성의 육체와 힘과 생식력이 가부장제 사회에서 권력을 갖게 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둘째, 남성 주체의 위기와 불안 심리를 보여준다는 것이다. <유화기연>이 창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19세기는 흔히 세도정치, 보수정국, 왕조의 몰락이 진행된 시기로, 유교 이데올로기가 해체되면서 동시에 주체로서 남성 또한 그 힘이 약화되던 시기였다. <유화기연>은 여성의 욕망과 주체성이 강화되고 있는 시대에 대한 남성 집단의 불안 심리를 반영하고 있다. 가정적·사회적 모든 권리를 상실할 수도 있다는 남성의 공포가 성기 없는 주인공을 만들어낸 것이다. 성적 회복을 통해서만이 군자가 될 수 있도록 설정하면서 성기 거세에 대한 공포심을 불러일으킨다.

셋째, 남성 공동체의 결속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세기말 남성성의 위기는 오히려 규범적인 남성성의 이상을 더욱 확고하게 만들었다. <유화기연>의 유춘이 남성성이 확보되었을 때 군자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처럼, 결국 조선 후기 ‘군자’로 불렸던 계층이 학식과 덕성을 지닌 인물들을 지칭하는 것이기는 했지만,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바탕에는 신체적으로 완벽하고 성정체성이 명확한 사람에 해당하는 것이었음을 말해준다. 조선 시대는 몸을 중심으로 정상/비정상, 주체/타자, 우/열, 강/약, 동화/이화를 뚜렷이 구분하는 성향이 있었다. 결국 신체적 완벽함이라는 군자의 조건은 타자와 자기를 ‘구분’지어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결속시키기 위한 것이기도 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조선 시대, 특히 조선 후기의 교양인으로 불렸던 ‘군자’의 모습을 <유화기연>의 유춘을 통해서 살펴보았다. <유화기연>의 유춘뿐만 아니라, 모든 고소설 속 남성 주인공들이 지향하는 인간형은 ‘군자’일 것이다. 그러나 이 작품이 ‘군자’의 조건과 의미를 살펴보는데 유의미한 이유는 결핍된 인간을, 특히 가부장제 사

회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남성성을 상실한 인간을 주인공으로 내세우고 있다는 것에 있다. <유화기연>뿐만 아니라, 신체 결함을 가진 주인공들이 19세기 소설 속에서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는 점을 미루어본다면, 조선 후기에는 이전 시대보다 남성에게 군자의 요건들을 더 강하게 제시했음을 알 수 있다. 본고에서는 조선 후기의 군자가 도덕적인 수양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신체적 완벽함과 남성성이 요구되었음을 <유화기연>을 통해 알아보았다. 그리고 군자 되기의 이면에는 가부장제의 권력과 억압이 강하게 내포되어 있으며, 그러한 규범 안에 남성들도 벗어날 수 없었음을 유춘의 ‘군자’되기 과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주제어 <유화기연>, 군자, 교양, 성불구, 결핍(缺乏), 외상(外傷), 수기치인(修己治人), 남성성(男性性), 완인(完人)

1. 조선 시대 교양인, 군자(君子)

교양은 서구적 의미에서 인간의 문화적 됬됨이를 만드는 교육의 내용과 그 절차를 뜻한다. 교양의 의미는 그리스어로 ‘경작(cultivation)’이라는 고전적인 뜻을 내포하는데, 이는 자연 상태에 있는 숲을 베어서 알곡을 생산할 수 있는 밭을 가꾸는 일이다. 독일어로는 교양을 축조(Bildung)라고 표현하는데, 집을 짓듯이 인간을 축조해간다는 뜻과 연관된다. 사람의 문화적 됬됨이란 그 사람을 사람이게끔 만드는 사람됨의 정체성을 의미한다.¹⁾ 따라서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역할이 바로 ‘교양임을 알 수 있다. 그런 만큼, 단순히 지식이나 기술만으로는 교양의 의미를 대변할 수 없다.

유기에서는 훌륭한 자질을 갖춘 이상적인 인간상을 성인 혹은 군자라 불렀다.²⁾ 바로 현대 시대의 교양인을 일컫는 것이다. 성인은 군자보다 더

1) 김성우·최종덕, 『대학 교양교육의 위기와 인문학의 미래』, 『시대와 철학』 20호, 2009, 13~16쪽 참조.

이상적인 인물이고, 현실적으로 만나기가 어려운 사람이다.³⁾ 고로 군자는 성임 됄을 목표로 하여 살아가는 현실적인 사람이다.⁴⁾ 군자의 목표는 수기치인(修己治人)하는 것인데, 이는 먼저 자신의 수양을 통해서 인격의 완성을 이루고, 다음에 다른 사람을 다스린다는 논리로서 유가의 이상인 왕도를 실행하는 방법론이다.⁵⁾ 논어 「학이」편 제1장에 대한 정약용의 주석을 보면 “군자는 덕행을 지닌 사람을 지칭한다. 정현은 『예기』, 『옥조』편 주(注)에서 ‘군자는 대부(大夫)나 사(士)이다.’라고 하였다. (또, ‘군자는 사(士) 이상의 관리를 말한다.’라고 하였다.) 「소의」편의 주(注)에서는 ‘군자란 경대부다.’라고 하였다. … 옛날에는 오직 덕이 있는 자만이 벼슬을 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재위자를 군자라고 말할 수 있었지만 후세에는 비록 벼슬이 없을지라도 덕이 있는 사람이면 군자라고 일컫는다.)”라고 하였다.⁶⁾ 군자는 경대부를 지칭하는 용어였지만, 공자는 이러한 용어들에 전통적 의미를 넘어 새로운 의미, 즉 도덕적인 의미를 부여한다. 따라서 벼슬과는 상관없이 군자란 덕성과 교양을 두루 겸비한 인격자를 지칭하는 용어임을 알 수 있다. 결국, 군자가 되기 위해서는 인간으로서 가치를 스스로 확보하는 사람됨의 주체성과 덕성을 키워야 가능한 것이다.

고소설 속 남성 주인공들의 이상향은 중국적으로 군자가 되는 것이다. 19세기에 창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유화기연>의 유춘도 마찬가지로

2) 송갑준, 「『논어』의 준자상과 그 현대적 의미」, 『대동철학』 32집, 2004, 2쪽.

3) 『論語』, 「述而」 “子曰, 聖人, 吾不得而見之矣, 得見君子者, 斯可矣”(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성인을 내가 만날 수 없더라도 군자라도 만날 수 있으면 괜찮을 것이다.”)

4) 강봉수, 「<논어>속의 인간상 연구」, 『도덕윤리과교육』 35호, 2012, 54쪽.

5) 송갑준, 앞의 논문, 1쪽.

6) 정약용, 『논어 고금주』, “君子有德之稱, 鄭玄玉藻曰 君子 大夫士(又云 君子士已上). 少儀注曰 君子 卿大夫. … 君子云 大君之子也, 猶王者之稱天子也, 古惟有德者 得在有德者 得在位故. 後世 雖無位 凡有德者 稱君子”

다.7) 그는 훌륭한 가문의 늙은 부부에게서 태어나 현실에서 고난을 당하지만 학식을 뽐내고 덕행을 닦으며 영웅적 기개(氣概)를 펼쳐 나라를 구해내어 최종적으로 군자의 경지에 오른다. 그런데 여타 고소설의 주인공들과 다른 점이 있다. 그것은 바로 유춘이 ‘성불구’라는 장애를 지닌 인물이기 때문이다. 여타 고소설에서도 주인공의 결핍은 존재한다. 그러나 그 결핍은 대개 신분이나 자신이 속한 가문의 문제 때문에 발생한다.8) 그러한 점을 미루어본다면, 성기(性器)가 없는 주인공을 내세우고 있는 <유화기연>은 매우 독특한 소설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장애 중에서도 성기가 없다는 것은 신체적 결함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문제를 야기한다는 점과 장애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은밀한 문제라는 점에서도 흥미롭다.

<유화기연>의 유춘은 자신의 결핍을 메우기 위해 수기치인(修己治人)하여 정인군자(正人君子)의 길을 걷는다. 군자는 ‘나면서 아는 자(生知者)’라기보다는 배움과 교육을 통해서 만들어 지는 자이다.9) 그렇다면, 유춘도 도덕적인 수양을 바탕으로 바른 정치를 한다면 신체적인 결함이 있다고 할지라도 군자가 될 수 있는가? 유춘이 최종적으로 군자가 되었음

7) <유화기연> 7권 7책으로, 필사본 1종과 활자본(유화기몽) 1종이 전해진다. 세책본인 필사본은 동양문고에 소장되어 있으며, 국립중앙도서관에서도 영인본으로 보관되어 있다. 각 권 말미에 필사가기가 표기되어 있는데, 5권(기유년: 1909)을 제외하고 모두 을사년(1905 추정)으로 되어 있는바, 필사연대가 19세기일 것으로 추정된다. 활자본 <유화기몽>은 1918년 대창서원·보급서관 구활자본으로 모두 10회로 구성된 회장체 소설이며, 국립중앙도서관에도 소장되어 있다. 필사본과는 서체의 크기가 달라 작품의 면수가 다르게 나타날 뿐, 실제의 내용 분량은 큰 차이가 없다. 이본에 관한 연구는 정도현 논문(『<유화기연>연구』, 한국교육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10)에 자세히 나와 있다.

본고에서는 필사본 <유화기연>을 교주하여 현대역한 본을 바탕으로 한다(이윤석 외, 『유화기연과 숙녀지기』, 경인문화사, 2008).

8) 박일용, 『<유충렬전>의 서사구조와 소설사적 의미 재론』, 『영웅소설의 소설사적 변주』 11집, 월인, 2003. 269~299쪽.

9) 강봉수, 앞의 논문, 54쪽.

을 감안한다면, 그가 군자가 될 수 있었던 조건에서 우리는 조선 시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조선 후기의 교양이라고 할 수 있는 군자 되기의 조건들을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유화기연>은 성적 결합을 가진 인물이 이를 극복하고 군자가 되는 과정을 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조선 후기 군자의 복합적인 면모를 살펴보기에 가장 적합한 텍스트라 판단된다.

<유화기연>은 그동안 학계에서 제대로 주목받지 못했다. 1990년에 처음 양혜란에 의해 소개된 이래¹⁰⁾ 일반논문과 학위논문 4편 정도가 발표되었을 뿐이다.¹¹⁾ 양혜란은 <유화기연>을 기봉류 소설로 분류하고, 양반과 기녀와의 결연을 내세워 전대 기봉류 소설과는 차별되는 새로운 유형적 특징의 작품으로 보았으며, 남녀의 결연이 ‘꿈’이라는 초월적 매개를 통하여 현실과의 연장선상에서 논리성을 획득하고 있음을 밝혔다. 유경희는 활자본 <유화기몽>의 전개 구조와 인물들의 성격분석을 통하여 조선 후기 성의식이 작품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살펴보았다. 임철호는 활자본 <유화기몽>이 조선사회에서 금기시했던 여성의 성을 소재로 했으며, 특히 여성의 시각에서 남녀 간의 성 문제와 성에 대한 각기 다른 인식을 다루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정도현은 <유화기연>의 이본, 서사구조와 인물형상, 대중적 지향 등을 살피며 본격적인 작품론을 썼다. 최근 엄태웅은 세책본 영웅군담소설의 서사 지향을 살펴보는 논문을 통해 <유화기연>이 결연 서사를 부각하는 세책본의 서사 지향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

10) 양혜란, 『유화기연의 구조적 특성 검토 - 꿈의 서사적 기능을 중심으로』, 『이화어문논집』 11집, 이화어문학회, 1990.

11) 유경희, 『<유화기몽>연구』, 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96.

임철호, 『<유화기몽>과 여성의 성-고소설의 여인들』, 『인문과학연구소』 7호, 전주대학교인문과학연구소, 2003.

정도현, 『<유화기연>연구』, 한국교육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10.

엄태웅, 『세책본 영웅군담소설의 서사 지향』,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65호, 2014, 592~594쪽.

라 평가하였다. 이와 같은 논문들은 <유화기연>의 존재를 학계에 알리고 소개하며, 대부분이 ‘성의식’에 초점을 맞추어 유춘보다 유춘의 여자들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존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작품의 내용과 특징을 분석하는 데 그치고 있으며 둘째, 결핍을 가진 주인공 유춘에 대한 천착이 부족했다는 것이다.¹²⁾ 마지막으로 주인공의 결핍과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이 조선 사회, 특히 조선후기의 어떠한 부분을 반영하고 있는지 파악하지 못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성불구자인 주인공 유춘이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노력했던 과정을 살펴보고, 주인공의 발전과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요소를 통하여 조선 후기 군자의 조건과 의미를 도출해 보고자 한다.

2. 유춘의 신체적 결핍(缺乏)으로 인한 외상(外傷)

유춘의 장애는 성기가 부재(不在)한 데에서 비롯된다. 이는 신체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혼란까지 야기한다. 더욱이 남성의 지배와 여성의 예속이라는 가부장제 사회 속에서 신체적 결함 때문에 지배적 남성이 되지 못하고 주변화된 남성이 된다는 점에서도 문제적이다. 이렇게 유춘의 ‘성불구’ 설정은 단순히 소재적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함의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¹³⁾

12) <유화기연>에서 4권까지는 유춘의 성불구 관련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5권부터 7권까지는 유춘의 영웅적 행위를 다루고 있다. 그런데, 기존 논의들은 유춘의 성불구 문제에만 집중하여 4권에서 7권까지의 유춘의 영웅 서사를 간과한 측면이 있다.

13) <유화기연>에서 주인공이 ‘성불구자’로 나오는 것은 고소설사에서 매우 독특한 설정이라 할 수 있다. 19세기 한문 단편 중에 <환치>라는 작품이 있는데, 이 작품은 성불구자인 내시에게 시집갔다가 성적 욕망을 이기지 못해 가난하더라도 진짜 남자와 살겠다는 결심을 하고 탈출하여 중을 유혹해 결혼에 성공한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유춘에게 성기가 없다는 것은,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닌 모호한 상태를 말해준다. 성기는 성적인 존재로서의 인간을 확인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대명 태조 창업 공신인 유기의 후예로 명문거족의 명성을 이어나갈 수 있는 군자의 조건을 지니고 태어났다. 부친인 유현은 공명에 뜻이 없어 남악 형산 연화봉 상운동에 거처를 정하고 산수 유람과 농업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처사다. 나이 40이 넘도록 대를 이을 아들을 낳지 못하자, 부인이 연화봉 자하함에 가서 부처에게 기자치성을 드려 아들을 얻게 된다. 그런데 그렇게 간절하게 바라던 아들의 모습을 보고 부부는 대경실색하게 된다. 그 이유는 “남녀의 표(標)가 없고, 뒤에 분문(糞門)이 있고, 앞에는 조그만 구멍이 있을 뿐”(1권)이었기 때문이다. 바로 남자라면 당연히 있어야 하는 성기가 없는 것이다. 이미 태몽을 꾸었을 때와 해산할 때 석가세존과 선녀가 나타나 “남녀를 분변치 못하는 병인이 적강할 것”(1권)과 그렇지만 “장성하여 길시를 만나면 귀불가언(貴不可言)할 것”임을 알려주었으나 실상 성기가 없는 아들이 태어나자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서 “음양을 모르는 병인”(1권)을 낳았다고 탄식한다.

부친 유현의 탄식과 절망의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교에서 가장 중요시 하는 우주 만물의 이치, 즉 음양의 조화를 아들 유춘이 깨뜨렸다는 것이다.¹⁴⁾ <유화기연>은 주인공의 가문과 혈통 내력을 설명하며 시작하는

<환처>에서 내시가 후천적인 성불구자라는 점에서는 <유화기연>의 유춘과 다른 점이기는 하지만, ‘성불구자’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련의 서사는 조선 후기 사회 남녀의 성적 욕망과 사회적 함의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김경미는 “<환처>를 통해서 볼 때 내시를 둘러싼 성 담론이 내시를 어떻게 타자화하며 남녀의 섹슈얼리티 위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 수 있다.”고 하였다. (김경미, 『조선후기 성 담론과 한문 소설에 재현된 섹슈얼리티』, 『19세기 소설사의 새로운 모색』, 보고사, 2011) 이렇게 ‘성불구’라는 설정이 단순히 인간의 성적 본능의 문제로만 귀결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문화적 맥락에서의 성 문제로 논의를 확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시된다.

14) “조선시대에는 성이란 용어 대신 ‘정(情)’이나 ‘욕(慾)’ 또는 ‘색(色)’으로 성적인 것을

여타 고소설들과 다르게 음양과 천지의 조화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독특하다.¹⁵⁾ 이렇게 음양의 조화를 강조하는 가운데, 음양을 알 수 없는 아들을 낳았으니, 의도치 않게 유교의 덕목을 위배한 것이다. 둘째, 조선 향화를 이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유춘은 성기가 없어 부부 교합을 할 수 없고 자연히 자식을 낳을 수 없으니 대를 이어 가문을 번성하게 해야 하는 자식의 도리를 행할 수가 없다. 셋째, 자식의 행복한 삶을 지켜볼 수 없다는 것이다. 부모의 바람은 자식이 현숙한 아내를 만나 화락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다. 그러나 자식이 남성성을 상실하였으니 가정을 이루지 못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이렇게 유춘은 성체정성이 불확실한 상태로 태어났기 때문에 남성의 기능과 역할을 상실하였고, 그래서 부모는 절망한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유춘의 성적 결함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은밀한 문제라는 것이다. 비슷한 시기에 창작되었을 것이라 여겨지는 <한후룡전>에서도 맹인과 앓은뱅이라는 장애인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데, 이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신체적인 결함 때문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쓸모없는 인간’으로 간주되어 가문과 사회로부터 차별받는다.¹⁶⁾ 그러나 유춘은 “이 아이 형모를 보니 골격이 여자는 아니오, 남자라”(1권)고 부친이 말한 것처럼, 다행이도 외적으로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 더욱이 외모뿐만 아니라 재기까지 뛰어나고 총명하여 “글을 배움이 문일지십하고 가르치지 아니하여도 생이

표현하거나 추상화된 개념을 가지고 설명했다. <삼한습유>에서도 음과 양이라는 추상화된 개념을 동원해서 신체와 남녀의 정욕에 대한 지식을 구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김경미, 위의 논문, 203쪽.)

15) “화설, 태극이 조관할 제 음양이 시분하니 경청한 기운은 위로 떠 하늘이 되어 일월 성신과 우설운무가 되어 사시 한서운량이 되고, 중탁한 기운은 아래로 엉기어 땅이 되어 산천 조목이며 만학 천봉이 되었는데, 곤륜산이 서방에 처하여 산악지조종으로 삼지용이 흘러 내려 천하구주 되었으며, 오악이 동서남북 중앙에 처하여 천지만엽으로 별렸으니 이는 천지조화인 줄 가히 알리러라” (1권)

16) 구선정, 「장애인 간 연대를 통한 치유」, 『한국문학치료학회』 34집, 2015. 159~188쪽.

지지”(1권) 했다. 즉, 군자가 될 자질을 타고난 것이다. 그래서 부친 유현은 아내에게 아들이 후일 부귀할 거라는 석가세존의 예언을 믿고 잘 길러보자고 위로한다. 신체적인 결함이 있다 할지라도 당시 사회가 요구하는 정신적 가치를 충족시킨다면 군자로서 인정받을 수 있다는 희망에서이다.

유현은 아들이 성불구자라는 결함 때문에 울적해하자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자신을 수련하여 도덕적으로 무장해야 한다고 당부한다. 그리하여 아들을 자하암 해원대사에게 보내어 공부도 하고 준경도 완상하게 하여 울적한 마음을 풀게 한다. 유춘은 자하암으로 가는 길에 화려하고 맑은 산천경개를 맘껏 구경한다.¹⁷⁾ 그리고 자하암에 도착한 후 절의 경치를 두루 구경하고 머물러 주야로 공부도 하며 꽃이 만발하면 만산 풍경을 구경하고, 시도 지으면서 자신의 마음을 수양한다. 이렇게 울분에 찬 심신을 자연 속에서 치유하니, 기운이 맑아져 학업에도 더욱더 열중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성적 결함을 딛고 일어서려는 유춘에게 외상(外傷)을 안겨 준 사건이 벌어진다. 유춘이 한창 공부에 매진하고 있을 때, 병부상서 화영이라는 자가 벼슬을 사직하고 산천을 유람하다가 자하암에 이르렀다. 이때 별당에서 글을 읽고 있는 유춘을 보게 되는데, 그에 대한 첫 인상은 다음과 같았다.

“공이 좌정 후 거안시지하니 비록 십여 세 동몽이나 거지 체증함이 장자 지품이 있고, 용모가 관옥같고 선풍도골에 영웅지상이요, 험태산이북해할 용력이 있는 듯 하며, 효성쌍안이 어질어 관인군자지상을 겸하여 한 곳도 미흡한 데 없어 일세 기남자라.” (1권)

17) “부모께 하직 후 서동 일인을 데리고 발행하여 자하암을 찾아갈새, 산천경개를 구경하니 보보절승하여 붉은 안개와 오색 채운이 봉두에 내려 창송 녹죽에 둘러 있고, 화풍은 서래하여 백화를 떨떠리니 가위 명승지지러라……” (1권) 유춘이 산천 경개를 구경하는 장면을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는 것이 주목된다.

화영이 자하암에서 본 유춘의 첫인상은 ‘장자지풍’·‘영웅지상’·‘관인군자’의 모습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렇게 유춘은 자하암에서 자신을 수련하며 군자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다. 화영은 유춘에게 반하여 사위로 점찍은 후, 집으로 돌아와 부인에게 “천하 기남자요, 영웅호걸”(1권)을 만났다고 얘기한다. 그리고 곧바로 유현의 집에 찾아가 청혼한다. 유현은 아들의 성적 결함을 생각하여 처음엔 거절하지만, 이내 못 이기는 척 허락하고 만다. 그리하여 혼인은 일사천리로 진행된다. 그런데 문제는 부친 유현이나 유춘이 성불구라는 병고를 일부러 숨기려 하는 데서 생긴다.

“부인 경탄 왈, 군자 나중에 어찌하고자 하여 허흔하시나니잇고? 나의 자식은 이미 병인이어니와 남의 만금 소교로서 또한 병인을 만들어 옥빈 흉안을 심규에 공로함을 면치 못하리니, 이는 적불선이라. 군자가 어찌 생각지 못하시니잇고?” (1권)

“처사 왈, 세상만사천야라. 이왕지사니 하릴없고, 자식을 병인으로 말하기 싫은 연고라. 설마 어찌하리잇고” (1권)

“공자 실색 왈, 헤아 이미 헤아린 바이웁고 야야가 허락하신 바에 내두지사 비록 유난하오나 증이파의라. 설마 어찌 하오리까? 복망 야야는 심려치 마르소서.” (1권)

유현이 아들의 병상을 실토하기 싫은 이유는 지금까지 쌓아온 아들의 덕망이 한 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아들의 결함을 덕성과 학식으로 메울 수 있다고 자신했지만, 내심 결국에는 성적 결함 때문에 아들의 인생이 발목 잡힐 수도 있다는 불안감 또한 여전히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다. 이는 유춘 본인도 마찬가지였다. 게다가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이 한 번 혼인하면 그것을 뒤집거나 개가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

었기 때문에 설사 사기 결혼을 당했다 할지라도 여성으로서 별 수 없을 거라는 이기적인 생각 또한 하고 있었다. 유춘도 남성 중심적인 사고가 내면화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부인의 생각은 달랐다. 부인은 남편이 화영의 청혼을 받아들이자 아들의 성적 결함을 말하지 않고 허락한 것을 탓하며, 죄 없는 남의 집 자식까지 병인으로 만들어 심규에서 늙어 죽게 만들 것이라고 탄식한다. 부인은 미래 며느리가 겪게 될 고통을 감지하고 있는데 반면, 유현은 가문과 자식의 안위만을 생각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성적 결함에 대한 은폐 시도는 결국 탄로 나고 만다. 이는 어쩌면 필연적인 결과라 할 수 있다. 혼인 후, 유춘은 화소저와 첫날밤을 맞이하는데 어쩔 수 없이 침석에는 나아가나 동침은 하지 않는다. 이에 화소저는 분명 부부간에 정은 있는 것 같은데, 유춘이 동침을 하려하지 않자 의아해한다.¹⁸⁾ 유춘이 처가에서 지내던 어느 더운 여름날이었다. 유춘은 날씨가 너무 더워 옷을 벗고 이불을 걷어 찬 채 잠을 자고 있었다. 이때 화소저가 이불을 덮어 주려고 다가갔다가 유춘의 배아래 남녀의 표적이 없고 밋밋함을 발견하게 된다.¹⁹⁾ 깜짝 놀란 화소저는 그 동안 남편이 왜 자신과 동침하려고 하지 않았는지를 깨닫게 된다. 화소저도 어느 정도 나이가 찾기 때문에 남녀가 결혼하면 부부 교합을 하는 것이 음양의 이치임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다가 남편이 성불구자라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 절망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왜냐하면 그렇다고 남편을 거부할 수도 없으니, 자신 또한 음양의 조화를 모르는 병인이 될 거라는 생각 때문이다. 그래서 자신을 음양을 아는 금수 곤충만도 못한 처지가 되었다고 탄식한다.²⁰⁾

18) “화축 동방에 무일불동침하니 무삼 연고인지 알지 못하리로다. 불화한 것도 아니고 화안이 무르녹아 유정부부나 다름이 없는데 동침시에는 관산이 가린 듯하니 아마도 심상치 않은 일로다” (2권)

19) “남자도 아니요, 여인도 아니요, 다만 작은 구멍 있는지라” (2권)

20) “나의 팔자 무상하여 사람이 되어 나 음양을 모르게 되니, 금수 곤충이라도 천지간에

“공이 고성 대왕, 내 너를 외모만 보고 침혹하여 몸소 나아가 여부를 보고 복걸복걸하되 불허하는 것을 내 미친 마음으로 누누 간청하여 허락을 얻음 이 내 평생 소원을 마친 듯하였더니, 어찌 이럴 줄 몽매에나 뜻하였으리오? 여부 심정이 무상하여 병신 자신을 두고, 내 아무리 간청한들 어찌 실사를 이르지 아니하고 견집하다가 짐짓 허락하니, 내 어찌 알리오? 그런 병인으로서 나의 만금 여이를 배하여 백년 신세를 맞게 하니 세상 천하에 이런 무거불측지사가 어디 있으리오? …” (2권)

이러한 사실은 장인의 귀에까지 들어간다. 화소저가 초췌해지자 연고를 물어보는 와중에 드러나게 된 것이다. 화소저의 모친은 “병신을 택서했다”(2권)며 남편을 원망한다. 화영은 외모만 보고 혹하여 사위로 택한 것에 대한 자책과 유현 부자가 사실을 말하지 않은 것에 대한 배신감과 딸의 안타까운 신세에 대한 슬픔의 분노가 복합적으로 밀려와 결국 폭발하고 만다. 그리하여 유춘을 본부로 내쫓는다. 여기서 화영이 단순히 외모에 혹해서 유춘을 사위로 선택한 것이 아니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자하암에서 분명 문답을 통해 유춘의 학식과 인간성을 두루 확인한 후 결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불구자리는 사실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문제였다. 아무리 유춘이 군자지상과 영웅호걸 같은 면모를 지녔다 하더라도 남성으로서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소용없는 일인 것이다.

유춘은 자신의 신체적 결함이 탄로 나자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하고 처가에서 쫓겨나고 만다. 그렇다면, 유춘이 변명도 못한 이유가 오직 성불구자리는 게 탄로 났기 때문일까? 유춘은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실사를 일렀다면 이런 욕을 당하였으리오? 가위 회지무급이로소이다”(2권)라 한다. 즉, 성적 결함이 드러난 것에 대한 수치심과 굴욕감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한 부끄러움이 더 컸던 것이다. 아무리 외

생거나 음양지리를 모름이 없거늘 … 사속을 어디로 좋아 이르리오.” (2권)

적으로 영웅군자의 모습을 지닌다 한들, 스스로에게 떳떳하지 못하다면 소용이 없는 것이다. 인(仁)의 실천은 곧 타인에 대한 배려라고 할 수 있는데, 유춘은 자신의 안위를 위해 “남의 무남독녀로 위인이 출류하여 절세미색과 요조덕행이 구비한 숙녀가인을 … 심규에 합원하여 백두음을 읊게 …”(2권)하여 인생을 망치게 했다.

유춘이 처가에서 쫓겨나 돌아온 이후에도 성적 결합 문제에 사로잡혀 있었다면, 아마도 집에 돌아와서 “입신양명하여 이현부모하고 출장입상하여 이름을 후세에 전함이 장부의 쾌사라”(2권)고 다시 굳게 다짐하지 못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처가에서의 일련의 사건들은 유춘이 성불구자로 남자 구실도 못하는 무능한 인간이라는 것을 재확인하게 해주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춘은 그 경험을 통해서 아무리 덕성과 학식으로 나를 채운다 한들, 근본적인 문제를 회피한 채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거짓된 삶을 살면서는 진정한 군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처가에서 생긴 외상은 거짓된 삶에 대한 부끄러움의 기억인 것이다. 한 인간이 성장하려면 자기 이해와 수용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유춘은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 자신을 성찰하고 수련하여 진정한 군자가 되기로 결심한다.

3. 유춘의 발전 과정을 통해 본 군자의 조건

랑시에르는 “스스로 해방된다는 것은 이탈을 감행하는 것이 아니라, 공통 세계를 함께 나누는 자로서 자신을 긍정하는 것, 비록 겉모습은 그와 반대되기는 하지만 우리가 상대와 동일한 게임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다.”²¹⁾라고 말한 바 있다. <유화기연>에서 유춘은 보통의 사람

21) 랑시에르 지음, 양창렬 옮김, 『정치적인 것의 가장자리에서』, 길, 2008, 113~114쪽.

과는 다른 신체적 결함을 지니고 있었지만, 그 세계 속에서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다. 유춘이 자기를 증명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조선 시대, 특히 조선 후기에 더 극명하게 드러난 군자의 조건이 무엇이었는지를 알 수 있다.

군자의 핵심 사상은 인(仁)이다. 공자는 출생배경이나 신분 관계없이 누구든지 그 행위가 규범적이고 도덕적이라면 군자라고 지칭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²²⁾ 유춘은 비록 성적 결함의 탄로로 인해 외상을 입었지만, 그렇다고 군자가 되는 길을 포기하지 않는다. 더욱이 성적 콤플렉스와 과거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오직 자신을 수양하여 도덕적으로 무장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공자는 군자의 도덕적 요건으로 지·인·용을 든 바 있다. 군자는 인자(仁者)이기 때문에 근심할 일이 없고, 지자(知者)이기 때문에 의혹을 일으킬 일이 없으며, 용자(勇者)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²³⁾ 유춘은 이렇게 지·인·용을 체득하기 위해 수련의 길을 걷는다.

1) 수기(修己)

군자 됨의 출발은 자기를 수양하는 데에 있다. “지혜로운 사람은 물을 좋아하고, 인자한 사람은 산을 좋아한다.”²⁴⁾고 한 것처럼, 유춘도 대자연의 아름다움을 벗 삼아 심성 수양하여 상처를 치유하고 본연의 마음으로 돌아가려 한다. 즉, 천하 강산을 두루 다니며 명산승지를 완상하면서 자신에 대한 깊은 성찰과 미래에 대해 조망하는 것이다.

22) 송갑준, 앞의 논문, 4쪽.

23) 『論語』, 「子罕」, “子曰 知者不惑 仁者不憂 勇者不懼”

24) 『論語』, 「雍也」, “子曰, 知者樂水, 仁者樂山, 知者動, 仁者靜”

“오초시간에 명승지지 많다 하니, 소상팔경을 먼저 보고 그리고 강남을 본 연후에 서천으로 들어가서 파축을 보리라. 하고 소상을 먼저 당두하니 강천이 막막한데 주루룩 살살 오는 비는 아황과 여영의 눈물ियो, 반죽이 삼삼한데 점점이 붉은 것이 반죽이 되었으니 소상야우 처량하다. … 상수로 올라가니 수운이 적막하고 황릉묘로 울고 오니 예 사당이 황량하다. … 팔경을 다 본 후에 절강 금릉을 다 돌아서 적벽강에 배를 타고 오초로 내려갈 제, 고적을 생각하니 임술지추 칠월에 소동파가 놀던 형적 안전에 벌였는 듯, 삼국시절 조맹덕이 강남을 얻고 이교를 취하려고 백만 대군 거느리고 시주임강하여 황삭부시할 적에 그 기세를 뉘 당하리? 제갈공명 신기묘산 주공근의 기묘비계 제 어찌 당하리오. … 고적을 역람하고 그리로서 백제성에 들어가서 영안궁에 전배하니, 이곳은 축한 소열황제 용담하라. 고사를 생각 하니 아무리 천수신들 연소필부에게 여지없이 패귀하사 인하여 봉하시니 통분하기 측량없다. … 서천에 득달하여 성도에 들어가니 산천도 수려하고 인물도 풍후하다.” (2권)

유춘은 산수 유람의 경로도 소상팔경에서 강남·파축으로 이어지도록 매우 구체적으로 계획한다. 그가 이러한 경로를 정한 이유는 옛 성인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자신에 삶에 대한 철학과 가치관을 바로 세우기 위함이다. 소상팔경을 두루 다니며 적막하고 황량한 황릉묘에서 아황과 여영의 절개를 찬양하고, 팔경을 다 본 후에 절강 금릉을 돌아 적벽강에서 배를 타고 오초로 내려가 삼국지의 인물들을 차례로 만난다. 강남을 얻고 이교(二橋)를 취하려고 백만 대군을 거느리고 시주임강(醴酒臨江) 황삭부시(橫槩賦詩)할 적에 조맹덕의 용맹함과, 조맹덕의 군대를 물리친 제갈공명의 훌륭한 계략과 주유의 기묘한 계책을 찬양한다. 그리고 오초를 돌아 강남 풍경을 다 본 후에 백제성에 들어가 오나라 손권에게 대패하여 죽은 소열황제 유비를 기린다. 마지막으로 서천에 도착하여 성도에 들어가 천하명구(天下名區)를 감상한다. 유춘은 이렇게 성인들의 행적을 통

해서 신의(信義)와 용맹, 지혜와 인생의 덧없음 등 성숙한 인간이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인생의 덕목들에 대해 사색한다. 산수 유람을 마치자 “마음이 상활하고 흥금이 시원해”(2권)진 것처럼 자연과의 몰아일체를 통해서 외상을 치유하고 마음의 안정을 찾는다.

그 다음 유춘은 도학을 배우기 위해 청허도사가 있는 아미산으로 향한다. 청허도사는 유춘이 성불구로 태어난 이유가 전생의 죄로 인한 것이며, 길운을 만나면 원을 풀고 부귀공명을 이룰 것이라고 알려준다.²⁵⁾ 유춘은 청허도사의 말에 위로를 받으며 학업에 매진한다. 도학뿐만 아니라 천문 지리와 손오병법·창검 쓰는 법·궁마지재를 배우는데 무엇이든지 환히 통하여 모르는 것이 없을 정도의 경지에 오른다. 뿐만 아니라 옥소와 현금도 단시간에 습득한다. 이때 배운 도술로 훗날 서용과 도적, 간신의 무리를 진압할 수 있게 된다.

<소현성록> 연작의 파생작인 <영이록>²⁶⁾에서 주인공인 손기도 지적 인 능력이 떨어지는 결함으로 인해 손아래 동서인 소운성에게 온갖 조롱과 멸시를 당하다가 기출한다. 그리하여 천경관으로 가서 양구도사에게 도학을 배운다. 그는 천서를 익혀 비·바람·산·물 등의 자연을 제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는 능력과 요괴와 정령, 용호와 나뭇 등을 제압하는 신이한 능력을 얻게 된다.

여기서 주목되는 바는, 두 주인공이 모두 도학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25) “그대는 근심치 말라. 그대의 품은 회포는 내 이미 아나니, 그대 전생 죄로 인간에 하강하여 남의 없는 수치를 지내고, 장성하면 길운을 만나 이름이 사해에 진동하고 문호를 흥기하여 이현부모하고 품은 원을 설하며, 부귀공명이 일세를 기울일지라. 무엇을 근심하리오?” (2권)

26) <영이록>은 <소현성록>연작의 파생작으로 3권 3책의 한국학 중앙연구원본과 2권 2책(손천사영이록)의 연세대본이 존재한다. <소현성록>에서 소운성이 손생과 대립하는 부분을 확장하여 손기를 주인공으로 재창작한 <영이록>은 손기가 바보라는 결핍을 극복하고 영웅으로 우뚝 서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완성한다는 것이다. 특히 두 주인공은 여타 다른 고소설의 주인공보다 결함이 많은 인물들이다. 나중에 이들이 입신양명하고 출장입상하여 대장부가 되는 과정은 유가적인 세계관에 입각하여 이루어진다. 그러면서도 장애를 극복하는 방식에서 유독 도교적인 방법을 취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장자에는 꼽추나 절름발이 등 적지 않은 장애인들이 도를 깨달은 현자로서 등장한다. 즉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내적으로 수련하고 단련하면 현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²⁷⁾ 이렇게 도교는 정상/비정상을 구분하지 않으며, 그 경계를 허문다. 유교에서는 신체적인 훼손 혹은 결함을 죄악으로 인식하여 차별하고 배제했던 바, 유교적인 방법으로 이들의 결핍을 보완하기란 어려웠던 것으로 여겨진다.²⁸⁾ 그래서 도교적인 상상력으로 이들의 결핍을 극복하게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유춘은 자연과의 합일 속에서 외상을 치유하고, 독서를 통해서 이성적 학문을 추구하고, 도학을 통해서 도술을 연마하며, 악기를 다루면서 예술적 감성 또한 겸비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자신을 속일 필요도 없고, 위축될 필요도 없다. 즉, 인자(仁者)이기 때문에 근심할 일도 없고, 지자(知者)이기 때문에 의혹할 일도 없는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용자(勇者)의 길을 걷는 것이다. 그는 그 길을 가기 위해 아미산에서의 수학(수학)을 마치고 장안으로 떠난다.

27) 박희병, 『병신』에의 視線-前近代 텍스트에서의, 『고전문학연구』 24권, 고전문학회, 2003, 311~312쪽.

28) 유춘의 성불구 문제가 전생의 죄업 때문이라고 설정하고 있는 것도 장애를 ‘죄’로 인식하는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너희 부부가 전생 죄상이 많아 차생에 속죄하느라 혈속을 없이 하였더니 … 기자 치성에 감동하여, 천상 태울선(요지 연회시에 옥액을 대취하고 태울선녀를 희롱한 죄와 소변을 싸 좌석을 더럽힌 죄로상이 노하시어, 병인으로 인간에 적강하라)을 주리니, 잘 길르면 영화가 무궁할 것이요, 병신은 자연 면하리니 처음은 서러워하나 장성하면 공명 부귀 일세에 빛나리라” (1권)

2) 완인(完人)과 남성성(男性性)

유춘은 아미산에서 수학을 통해 덕성과 학식을 갖추어 자신감을 회복한다. 이제 성적 결함은 그에게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성적 결함 때문에 처가에서 쫓겨나 가정이 파탄 났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의치 않고 과거 보기를 감행하여 가족을 다시 재건하려고 하는 그의 의지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유춘의 변화된 생각과 성장에도 불구하고 서시는 다시 유춘의 성적 결함 문제를 제기한다.

유춘은 장안에 이르러 청루에 들린다. 이때 귀공자들이 일등 명기들을 데리고 노는 잔치에 우연히 참여하게 된다. 마침 옥낭이라는 기생이 유춘을 보고 “옥안영풍이 본바 처음이요. 공명 부귀지산이 외모에 현출하다”(3권)며 반하여 추파를 던져 자신의 집에 데려 간다. 유춘도 옥낭이 좋아 그곳에 잠시 머무른다. 그러나 유춘이 동침하려 들지 않자, 옥낭은 자신이 기생이어서 거부하는가 싶어 기생일도 그만 둔다. 그래도 전혀 반응이 없자, 이상하다 생각하여 잠자는 척하며 유춘의 몸을 더듬어본다. 그리고 성기가 없음을 확인한다. 이에 유춘은 전생 죄악으로 인해 불구가 되었음을 고백한다.²⁹⁾ 전일 화소저에게 성적 결함을 비밀로 했던 것에 비해, 물론 기생신분이기는 하지만, 옥낭에게 솔직히 털어 놓는다는 점에서도 그의 달라진 면모를 볼 수 있다. 그래서 옥낭은 화소저와 다르게 흥분하지 않고 차분하게 이를 해결할 방법을 강구할 수 있었다.

옥낭은 유춘의 몸을 자세히 만져 본다. 그리고 음부 부분에 무엇인가 잡힌다는 것을 알고 이것이 성기임을 확신한다. 그래서 옥낭은 유춘을 취하게 하여 깊게 잠이 들게 한 후 “단도를 리(利)하게 갈아가지고 피 씻을 수건을 가지고”(3권) 바지를 벗겨 그 구멍 있는 곳의 가죽을 쥐고 칼로 베

29) “나의 전생 죄악이 심중하여 이런 병인으로 평생 유한이 되었도다.” (3권)

니 “가죽이 좌우로 갈라지며 남자의 신낭(腎囊)이 일제히 빠어”(3권) 진다. 이렇게 유혈이 낭자하는 가운데 성기가 드러난다. 술에서 깨 유춘은 자신의 성기가 있는 것을 보고 옥낭에게 “그대는 내게 큰 은인이라. 음양을 통하게 되어 쾌히 장부되니, 무슨 한이 있으리오.”(3권)하면서 고마워한다. 옥낭은 상처를 낫게 하는 약을 구하여 유춘의 몸에 발라 피부를 재생시킨다. 이에 유춘은 정신이 쇠락해지면서 즐거운 마음이 생긴다. 그리고 회복한 후에는 옥낭과 동침을 하며, 운우지정을 나눈다. 이렇게 유춘의 성적 본능과 욕망이 되살아난다.

유춘은 수련을 통해 학식과 덕성을 쌓아 자신감을 갖고 장안으로 왔지만, 옥낭으로 인해 다시 성정체성에 대한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그리고 타인의 힘을 빌려 성적 결함을 극복한다. 스스로 원해서 성적 결함을 극복했다기보다는 수기(修己)를 다하니 자연스럽게 액운을 떨쳐진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장인 화영과 화소저가 유춘을 내쫓은 이후 오히려 인생이 불행해졌다는 것이다. 작가는 화영이 사위를 내쫓는 부분에서 “화영은 본디 성정이 과격하고 급한지라.”(2권)를 여러 번 강조한다. 뿐만 아니라 화영이 관직을 그만 둘 때, 또 다시 이부총재로 승직했다가 관직을 거절할 때에도 이 모든 우환이 화영의 과격한 성정 때문이라는 것을 부각한다. 즉, 화영이 사위를 내쫓은 것에 대한 비판의 포석을 깔고 있는 것이다. 군자지상과 영웅호걸의 면모를 확인해 놓고서도 단지 성불구자라는 이유만으로 성급하게 내쫓은 것에 대한 경솔함을 문제 삼고 있다.

이는 화소저도 마찬가지다. 화소저는 유춘이 성불구자임을 알고 자기는 금수 곤충만도 못한 인간이라고 탄식했지만, 남편이 떠나자마자 곧 후회하고 죄책감에 사로잡힌다. 왜냐하면 “비록 남녀교합지정은 몰랐으나 부창부수(夫唱婦隨) 부화처순(夫和妻順)하던 사이”(2권)였기 때문이다. 동침은 없었으나 지기지우와도 같은 남편을 성적 결함이 있다는 이유만

으로 내쫓는데 일조한 행동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을 보여주고 있다. 화소저는 설상가상으로 동네 불량배인 장평에게 쫓겨 달아나다 소상강에 몸을 투신하기에 이른다. 이처럼 화영과 화소저의 불행은 전일 유춘을 성급하게 내몬 것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다. 즉, 안목 없음과 신의(信義) 없음에 대한 결과인 것이다. 영웅군자가 된 유춘은 자하암에서 피신하고 있던 화소저를 찾고 천자에게 청해 화영의 죄를 면하게 하여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한다. 이때 이들은 자신들의 신의 없음에 용서를 구한다. 화영과 화소저의 불행과 후회를 통해서 작가는 인간의 외면보다 내면이 더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부부란 단지 성적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관계가 아니라 신의(信義)의 관계임을 강조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가는 유춘이 성기를 되찾고 나서야 비로소完인(完人)이 되었다고 선언한다. 유춘의 성적 결함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군자가 되는 데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도 볼 수 있다. 더욱이 유춘의 수련 과정과 화영과 화소저의 후회를 통해서 내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던 터였다. 그러나 작가는 유춘이 성기를 되찾는 순간부터 그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게 한다. 유춘은 성적 결함의 문제가 해결되자마자 각각 화소저와 옥낭을 받아들여 운우지정을 나눈다. 그리하여 부부 관계에 주체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처가와외의 관계에서도 우위를 선점한다.

이렇게 유춘의 성적 회복은 단순히 성적 욕구만을 충족시켜 준 것이 아니라, 남성으로서의 힘과 권력까지 안겨주었다는 점에서 의미하는 바가 크다. 즉, 성적 결함이 개인적인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비단 개인의 본능이나 욕망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함의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³⁰⁾ 남성의 성이 사회적 지배력과 깊은 연관성이 있음을 확인하

30) 김경미는 섹슈얼리티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성적인 욕망들, 성적인 정체성 및 성

게 되는 순간이다. 그는 남성 중심의 가부장제 사회 속에서도 성 불구자라는 결함 때문에 오히려 여성보다도 못한 약자의 위치에 놓여 있었다. 남성이 권력을 가진 가부장제 사회 속에서 주변화된 남성이 아닌 지배적인 남성이 되기 위해서는 성 관계 내에서도 우위를 점해야 한다.³¹⁾ 그래서 작가는 유춘이 수기(修己)한 대가로 성기를 되찾게 하고 있다. 아무리 학식과 덕망으로 자신을 완성한다 하더라도 남성성이 구현되어야지만 군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3) 치인(治人)

수기(修己)를 통해 자기를 완성했다면, 이제 치인(治人), 즉 한 나라를 잘 다스리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 즉, 실천해야 하는 것이다. 격물(格物) · 치지(致知) · 성의(誠意) · 정심(正心) · 수신(修身)이 수기와 관련된 것이라면, 제가(齊家) · 치국(治國) · 평천하(平天下)는 치인에 속하는 것이다. 이제 두려움 없는 용자(勇者)가 되어야 한다.

오늘날의 인격이 완성된 사람은 그렇게 할 필요까지야 있겠느냐? 이익을 보게 되는 때를 당면하여서는 그것을 취하는 것이 의(義)로운가를 생각하고, 나라가 위태로울 때는 목숨을 내놓을 각오를 해야 하며, 오래된 악속에 대해

적 실천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하며, 이때 성이란 다양한 사회, 문화적 맥락 내에서 다른 사회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구성된다는 입장이다. 즉, 인간의 성은 비단 본능이나 욕망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함의들, 다양한 사회적 힘, 권력과 담론들의 관계에서 생겨나는 것으로, 성이란 ‘성’이란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사회적, 역사적 힘의 산물, 즉 사회적 구성물이다.” (김경미, 앞의 논문, 191쪽)

31) “코넬은 ‘지배적 남성성’의 개념을 내세우면서 그것을 성 관계라는 구조 내에서 결정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남성성의 형태로 규정짓고 있다.”

정윤희, 『“남성성”의 사회적 구성과 현대 남성성의 변화 고찰』, 『젠더연구』 13호, 2008, 148쪽.

서는 지난날의 말을 잊지 않는다면 인격이 완성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³²⁾

정의·정의 실현의 정신·신의가 바로 군자의 자격요건인 것이다.³³⁾ 수기를 통해 자기를 완성하고 남성성을 획득한 유춘은 과거 급제를 통해서 치인의 길로 나아간다. <유화기연>은 총 7권 7책으로 4권까지는 유춘의 수기(修己)와 남성성의 획득 과정을, 그 이후부터 마지막까지는 유춘의 영웅적인 행적을 서술하고 있다. 치인의 과정을 상당히 비중 있게 서술하고 있는 것이다. 치인의 행적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서용을 정벌한 것이다. 서용이 십만 대군을 거느리고 한중을 침범하자, 유춘이 장수가 되어 출전한다. 서용의 모사 청운도사는 도술을 부리던 자로, 구름을 타고 몰래 유춘의 진영에 들어가 유춘을 칼로 죽이려고 한다. 이때 유춘은 아미산에서 배운 현금을 타며 노래를 불러 청운도사를 회유하여 다시 산으로 돌려보낸다. 한편, 서용의 장수 철통골 일행을 도술로써 매복한 다음에 청허도사가 하산할 때 준 옥소를 불러 군사들의 마음을 동하게 하여 해산시킨다. 그리하여 서용과 철통골을 붙잡아 장안으로 호송한다. 이에 유춘은 병부상서 대사마 대장군으로 승직한다.

두 번째는 절강의 도적 장평을 진압한 것이다. 장평은 화소저를 겁탈하려 했던 인물이기도 하다. 유춘은 자신을 벽운도사라고 속인 후 장평에게 다가가 현란한 활솜씨와 말 타기로 마음을 사로잡은 후, 그들을 산 중에서 내려오게 하여 붙잡는다. 그리고 자신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한 죄를 물어 장평을 칼로 베어 죽인다.

이렇게 서용과 도적을 물리치고 승전고를 울리며 장안으로 돌아온 유

32) 『논어』, 「현문(憲問)」 13, “今之成人者 何必然. 見利思義, 見危授命, 久要不忘平生之言, 亦可以爲成人矣”

33) 송갑준, 앞의 논문, 12쪽.

춘은, 천자로부터 태학사라는 높은 관직을 받는다. 그리고 화소저에게 부인 직첩을, 귀양을 가 있던 화영에게는 죄를 사면하고 벼슬까지 받을 수 있게 한다. 또한 장평의 난 때 헤어졌던 화소저와 모친도 상봉할 수 있게 해준다. 비록 자신을 쫓아냈던 처가였지만, 유춘은 그들을 포용한다.

유춘은 장안에 화려한 집을 하사받아 그곳에 부모님과 화소저와 옥낭을 데려온다. 이후 자녀를 많이 낳으면서 가문의 안정과 번영을 누린다. 가정에서 쫓겨났던 유춘이 이렇게 가정을 다시 재건하여 번영을 가능하게 하고 또 더 나아가 나라까지 평화롭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능력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큰 변화와 성장이 이루어졌음을 말해준다. 이렇게 해서 영웅군자의 면모를 완성한다.

보통 고소설에서는 여기서 작품이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유화기연>은 또 다시 유춘의 영웅적 행위를 부각시킨다. 이미 유춘은 자식들이 장원급제하여 각각 벼슬을 맡아 승승장구하고 있을 때였다. 황제가 죽고 어린 태자가 즉위하자, 유춘은 황제의 스승이 된다. 이때 연왕 친이 강귀비와 손을 잡고 역모를 꾀하여 황제를 위협에 빠트린다. 유춘은 아미산에서 배운 도술, 즉 둔갑법을 사용하여 그들을 진압한다. 이렇게 하고서야 천하는 완전히 태평해진다. 이렇게 작품이 끝나는 순간까지도 유춘의 영웅적 행위를 거듭 강조하는 것을 보면, 그가 비록 성불구라는 결함을 지녔으나 충분히 영웅군자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추고 있었음을 독자에게 강조하기 위함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군자의 마지막 조건, 치인(治人)을 완성한다.

4. <유화기연>을 통해 본 ‘군자’의 이면 - 결론을 대신하여

첫째, 남성성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유춘의 성기가 없다는 것은 음양의 조화를 거스르는 것으로 남성으로서의 기능과 역할 상실을 의미

한다. 그래서 당대 가부장적 사회의 주체인 남성이면서도 성불구자이기 때문에 타자인 여성보다도 하위에 놓일 수밖에 없었다. 군자란 덕이 있는 사람을 지칭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출신배경이나 신분도 상관이 없다. 그런 면에서 유춘 또한 ‘수기치인’을 통하여 군자가 되기를 꿈꾼다. 그는 대자연 속에서의 심성 수양과 도학 수련을 통해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여 수기를 달성하며, 세상과 타인을 위해 정의를 실현하면서 ‘치인’을 완성한다. 그렇지만 ‘치인’이 가능했던 것은 성적 결함이 해결되었기 때문이었다. 결국 군자가 되기 위해서는 남성성을 회복하거나 확보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남성성이란, 남성들이 어떻게 존재해야만 하는가에 대한 기준이자 표준 모델이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남성이라는 존재로서 내면화하고 체화해야 할 남성 개개인의 정체성, 사회성, 권위와 권력의 상징으로 간주된다.³⁴⁾ 주변화 되었던 유춘은 성기를 되찾게 되면서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된다. 이 작품이 특히 결연을 통해 남성의 육체와 힘과 생식력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러한 것들이 가부장제 사회에서 권력을 갖게 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게 한다.

둘째, 남성 주체의 위기와 불안 심리를 보여준다. <유화기연>이 창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19세기는 흔히 세도정치, 보수정국, 왕조의 몰락이 진행된 시기로, 유교 이데올로기가 해체되면서 동시에 주체로서 남성 또한 그 힘이 약화되던 시기였다.³⁵⁾ 즉, 남성 지배의 정당성이 위기에 직면하던 시기였던 것이다. 이러한 시대 분위기 가운데 <유화기연>이 이전 소설에서는 볼 수 없었던 성기 없는 남성을 주인공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것은 여성의 욕망과 주체성이 강화되고 있는 시대에 대한 남성 집단의 불

34) 정윤희, 『남성성의 사회적 구성과 현대 남성성의 변화 고찰』, 『젠더연구』 13호, 2008, 147~163쪽.

35) 김경미, 『19세기 소설사의 구도와 한문소설의 전개』, 『19세기 소설사의 모색』, 보고사, 2011, 13쪽.

안 심리를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가정적·사회적 모든 권리를 상실할 수도 있다는 남성의 공포가 성기 없는 주인공을 만들어낸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작가는 유춘의 성기 없음을 천상에서의 죄로 인한 액운으로 설정한다.³⁶⁾ 성적 회복을 통해서만이 군자가 될 수 있도록 하면서 성기 거세에 대한 공포를 불러일으킨다.

셋째, 남성 공동체의 결속을 강화한다. 세기말 남성성의 위기는 한편 남자다움의 규범을 변화시키기보다는 오히려 규범적인 남성성의 이상을 더욱 확고하게 만들었다.³⁷⁾ 즉, 권위적인 아버지의 몰락과 규범적인 남성성의 해체를 꿈꾸는 집단에 대항하기 위해서 체제를 더욱더 공고히 하는 것이다. 유춘이 남성성이 확보되었을 때 군자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처럼, 19세기에 창작되었을 것으로 여겨지는 <한후룡전>에서도 이와 같은 양상을 보인다. 맹인과 앓은뱅이를 주인공으로 하는 이 작품에서 두 주인공도 명실을 회복시켜 영웅이 될 수 있었던 바탕에는 병을 고쳐 완인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결국 조선 후기 ‘군자’로 불렸던 계층이 학식과 덕성을 지닌 인물들을 지칭하는 것이기는 했지만,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바탕에는 신체적으로 완벽하고 성정체성이 명확한 사람에 해당하는 것이었음을 말해준다. 조선 시대는 몸을 중심으로 정상/비정상, 주체/타자, 우/열, 강/약, 유시(有視)/무시(無視), 동화/이화를 뚜렷이 구분하는 성향이 있었다.³⁸⁾ 그리하여 신체적 결함을 가진 사람은 덕성이나 품성과는 관계없이 비정상, 무능력, 도덕적 결함, 지적 저열성 등을 가지고 있다고 폄하하였다. <유화기연>의 유춘이 처가에서 쫓겨나고, <한후룡전>

36) 유춘이 부인 화소저가 아니라 허충민이라 할 수 있는 기생 옥랑에 의해 성기를 되찾게 된다는 설정에서도 상층 여성에 대한 경계 의식이 엿보인다.

37) 정윤희, 위의 논문, 156쪽.

38) 박희병, 위의 논문, 311~312쪽.

의 한후릉과 허영이 집에서 쫓겨나고, <환처>의 내시가 아내로부터 버림 받은 이유는 바로 이들이 비장애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인 인물들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신체적 결함을 극복하고 완인이 되었을 때에만 권력을 가진 공동체 안에 일원이 될 수 있었다. 고소설의 주인공들이 대부분 비장애인 남성으로 신체적 완벽함과 강한 남성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봐도 이를 알 수 있다. 결국 군자란 타자와 자기를 '구분'지어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결속시키기 위한 것이기도 했던 것이다.

이렇게 조선 시대, 특히 조선 후기의 교양인으로 불렸던 '군자'의 모습을 <유화기연>의 유춘을 통해서 살펴보았다. <유화기연>의 유춘뿐만 아니라, 모든 고소설 속 남성 주인공들이 지향하는 인간형은 '군자'일 것이다. 그러나 이 작품이 '군자'의 조건과 의미를 살펴보는데 유의미한 이유는 결핍된 인간을, 특히 가부장제 사회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남성성을 상실한 인간을 주인공으로 내세우고 있다는 것에 있다. 게다가 <유화기연>뿐만 아니라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신체 결함의 주인공들이 19세기 소설 속에서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는 점을 미루어본다면, 조선 후기에는 이전 시대보다 남성에게 군자의 요건들을 더 강하게 요구했음을 알 수 있다. 공자가 말했듯이, 군자는 도덕적인 수양을 바탕으로 바른 정치를 하는 사람이다. 하지만 조선 후기의 군자는 도덕적인 수양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신체적 완벽함과 남성성이 강조되었음을 <유화기연>을 통해 알 수 있었다. 즉, 군자 되기 이면에는 가부장제의 권력과 억압이 강하게 내포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러한 규범 안에서 남성들도 벗어날 수 없었음을 유춘의 '군자'되기를 통해 확인하였다.

참고문헌

<유화기연> 동양문고본.

<유화기몽> 대창서원, 보급서관구활자본.

이운석 외, 『유화기연과 숙녀지기』, 경인문화사, 2008.

『논어집주』.

정약용, 『논어 고금주』.

강봉수, 「<논어>속의 인간상 연구」, 『도덕윤리과교육』 35호, 2012, 51~78쪽.

구선정, 「장애인 간 연대를 통한 치유」, 『한국문학치료학회』 34집, 2015, 159~188쪽.

김경미, 『19세기 소설사의 새로운 모색』, 보고서, 2011, 1~277쪽.

김성우·최종덕, 「대학 교양교육의 위기와 인문학의 미래」, 『시대와 철학』 20호, 2009, 11~42쪽.

랑시에르 지음, 양창렬 옮김, 『정치적인 것의 가장자리에서』, 길, 2008, 1~279쪽.

박일용, 「<유충렬전>의 서사구조와 소설사적 의미 재론」, 『영웅소설의 소설사적 변주』 11집, 월인, 2003, 269~299쪽.

박희병, 「'병신'에의 視線-前近代 텍스트에서의」, 『고전문학연구』 24권, 고전문학회, 2003, 309~361쪽.

송갑준, 「<논어>의 군자상과 그 현대적 의미」, 『대동 철학』 32집, 2005, 1~125쪽.

양혜란, 「유화기연의 구조적 특성 검토-꿈의 서사적 기능을 중심으로」, 『이화어문 논집』 11집, 이화어문학회, 1990, 241~263쪽.

엄태웅, 「세책본 영웅군담소설의 서사 지향」,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65호, 2014, 592~594쪽.

유경희, 「<유화기몽>연구」, 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96.

임철호, 「<유화기몽>과 여성의 성-고소설의 여인들」, 『인문과학연구소』 7호, 전주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3, 275~298쪽.

정도현, 「<유화기연>연구」, 한국교육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10.

정윤희, 「'남성성'의 사회적 구성과 현대 남성성의 변화 고찰」, 『젠더연구』 13호, 2008, 145~163쪽.

ABSTRACT

Study on the Condition of Gunja(君子) in <Yuhwagiyeon(유화기연)>

Koo, Sun-jung

The eventual ideal of male characters in the ancient novels was to be Gunja. Yuchun of <Yuhwagiyeon> was the same. However, different point from the characters of other ancient novels was, the main character Yuchun was 'sexually impotent'. In respect that he had no sexual organs, he had lost his masculinity. As he had married his wife hiding his defect, he was expelled by his wife and father-in-law when it was revealed. Nevertheless, Yuchun followed a road of 'Sugichiyin(修己治人)' in order to be Gunja.

When investigating the process that Yuchun ascended Gunja, we can learn the meaning of Gunja of Joseon period. First, it is based on masculinity. Second, it shows crisis and insecure mind state of the male subject. Third, it reinforced solidarity of male community through being Gunja. As Confucius said, Gunja is a person who conducts right politics based on the moral cultivation. However, Gunja of Joseon should have combine both physical perfection and masculinity, besides moral cultivation. That is, the meaning of Gunja contained the authority and suppression of patriarchy. This research could determine that the men could not evade such norms through the process of Yuhyun's being 'Gunja'.

Key Words <Yuhwagiyeon(유화기연)>, Gunja(군자), refinement, sexual impotent, lack(缺乏), trauma(外傷), Sugichiyin(修己治人), masculinity(男性性), Physical perfection(完人)

논문투고일 : 2015. 11. 10

심사완료일 : 2015. 12. 8

게재확정일 : 2015. 12. 15